

## II. 환경경영 : '98 세계 주요기업의 환경경영 도입 실태

■ 최근 자동차, 정보전자, 화학분야 세계 주요 기업들은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, 환경위해물질 사용 금지, 환경 감사제도 적용 등 환경친화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노력을 적극 전개

### ■ 관련 동향

#### 【자동차 산업】

- 일본 도요타, 미쓰비시, 혼다와 이스쓰社 등은 매연 저감장치, 저연비 디젤엔진 등의 대기오염 저감기술을 상호 교환하여 각사 생산차량 제작에 응용하는 기술협력체제를 구축
-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는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배출되는 인체유해 물질인 오존 저감기술을 도입한 중소형 자동차를 99년 상반기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
- 일본 닛산자동차는
  - 오는 2000년부터 자동차부품 재활용률을 90%로 높이고 수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전기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실용화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
  - 3ℓ의 연료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최저연비 자동차를 2003-2005년부터 본격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
- 일본 도요타, 프랑스 푸조등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자동차社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규모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오염 흡수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수종(樹種) 개발 등을 포함한 환경친화 사업을 적극 전개
  - 프랑스 푸조社는 6억 달러규모의 브라질 자동차공장 건설 착수와 함께 인근 마토그로소州지역에 향후 3년간 1,000만 그루의 열대 수종을 식목할 계획임을 발표

#### 【정보전자 산업】

- 도시바, 필립스, SGS 톰슨社 등 일본·유럽 반도체 업체들은 오존층파괴를 야기하는 염화불화탄소(CFC), 「트리클로르 에탄올」 대체물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

- IBM,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모토로라社 등 미국내 13개 반도체업체들은 미국 환경보호국(EPA) 주도로 결성된 환경보호사업인 『배출 감축 프로그램(ERP)』을 수행 중
  - 이 프로그램 추진으로 IBM은 지난 10년간 총 6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, 약 5억 2,500만불의 비용을 절감
- 일본 NEC는
  - 컴퓨터 케이블 등에 사용하고 있는 환경위해물질인 『폴리비닐클로라이드(PVC)』 사용량을 2002년까지 '97년 대비 20% 삭감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&D투자계획을 발표
  - 생산 자회사를 포함한 전국 총 36개 공장의 환경보호활동을 점수제로 평가, 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대책의 진척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감사제도의 도입을 결정
- 일본 후지쓰는 전사적(全社的)인 환경의식 고취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'99년까지 자사에서 사용하는 환경위해 화학물질 관련정보를 전국 13개 사업소에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임을 발표

#### 【화학산업】

- 미국 이스터만 케미컬, 제넨코 인터내셔널社 등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아스코빅산(비타민 C)을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공정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을 공동 개발
- 미국 다우케미칼, 독일 바이엘, 일본 미쓰비시화학 등 세계 주요 화학업체들은 화학수지제품에서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2000년까지 5~6억엔의 연구비를 공동 투자하여 안전성 증명에 필요한 구체적 연구결과를 제시할 계획
-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(BP)社는
  - 향후 12년 내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의 10% 이하로 감축할 방침을 수립
  - 이를 달성키 위해 전세계 9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증진, 新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전략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

#### 【기타 산업】

- 다국적 신발·의류 제조업체인 미국 나이키社는 제품제조시 휘발성유기

화합물질(VOC)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PVC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

- PVC생산업계는 나이키社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나이키 측의 결정은 그린피스등 환경단체의 잘못된 정보와 불매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
- 일본 기린 맥주社는 전국 15개 공장 폐기물 재활용률 100%, 아사히 맥주社는 전국 8개공장 재활용률 98% 달성에 각각 성공
  - '97년도 기린 맥주社 폐기물 처리비용은 10억 8,000만엔, 재활용 폐기물 판매수익은 7억 4,000만엔
- 일본 마쓰시타社는 '98년말까지 대표적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新물질 연구개발사업에 총 5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
  - 마쓰시다社는 수소화불화탄소(HFC), 非프레온 발포제 등을 냉장고 냉매 대체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

#### ■ 시사점

- 최근 세계 주요 기업의 환경친화 기술·경영기법 도입은
  - 오염물질 저감기술 및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한 R&D 투자 확대, 기업 이미지 쇄신노력 전개, 환경친화경영 정착을 위한 자회사간 경쟁 촉진 등은 물론
  - 부족한 자사 기술·경영기법 보완,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추진, 생산제품에 대한 환경위해 의혹 해소 등을 위해 경쟁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
- 이러한 추세는
  - 국제사회의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의 환경친화 상품 및 경영기법 도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기존의 사업 전략을 고수할 경우 기업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
  - 앞으로 세계 주요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환경감사제도, 환경회계제도 등 환경친화적 경영기법을 적용하고 환경오염 저감기술 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

< 자료 : 해외산업경제정보 >